

2대 걸쳐 성게알 수출... 日 입맛 사로잡아

● 윤일훈 보성무역 대표

1977년 설립된 보성무역은 성게알 하나로 일본 열도의 입맛을 사로잡은 기업이다. 성게 중 최상품으로 치는 말뚝성게의 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일본 내 수요의 100%를 대고 있다. 지난해 대일 수출은 474만달러로 전년 대비 41.55% 늘어났다.

보성무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게알을 수출하는 회사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 성공비결로 꼽힌다. 윤일훈 대표는 "일본 바이어 중

에선 100년 넘게 성게알만 취급한 곳도 있다"며 "바닥에 물기를 없애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본 현지 위생 조건을 뛰어넘을 정도로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최근엔 성게알 통조림을 자체 개발, 독일 호주 홍콩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. 윤 대표는 "성게는 채취 시기가 일정해 5~9월 외에는 신선한 성게알을 납품할 수 없었는데 통조림화를 통해 이를 극복했다"며 "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